

1501년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 연구*

김지은**

- I. 머리말
- II.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 목조대좌의 목서명 분석
- III.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의 도상 및 양식 특징
- IV.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 제작기법과 건칠불상의 제작 감소
- V. 맺음말

I. 머리말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慶州 祇林寺 乾漆菩薩半跏像)>(이하 <기림사 건칠보살상>)은 1501년(弘治 14)에 조성된 건칠보살상이다. 크기는 전체높이 90.6cm, 무릎 너비 43.6cm로 비슷한 시기 건칠좌상의 평균 높이가 110cm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작은 크기에 속한다(Fig. 1). 목조대좌가 함께 전하는데, 여기에 적힌 목서명을 통해 조성연도와 원봉안처, 발원자 등이 밝혀졌다. 홍치 14년, 함월산 서수암의 당주(堂主)로 '낙산관음보살'을 조성하였고 정월에 시작하여 사월초파일에 마쳤다. 발원자는 공양주 승려 지희(智熙)와 대화주 이원림(李元林)을 포함한 총 6명 이상이 확인된다.¹

* 본 논문은 필자의 「1501년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 연구」(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4)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 동국대학교박물관 전임연구원

¹ <기림사 건칠보살상>이 언제 기림사로 옮겨졌는지 알 수 없지만, 1740년에 간행된 『신라함월산기림사사적』에 기록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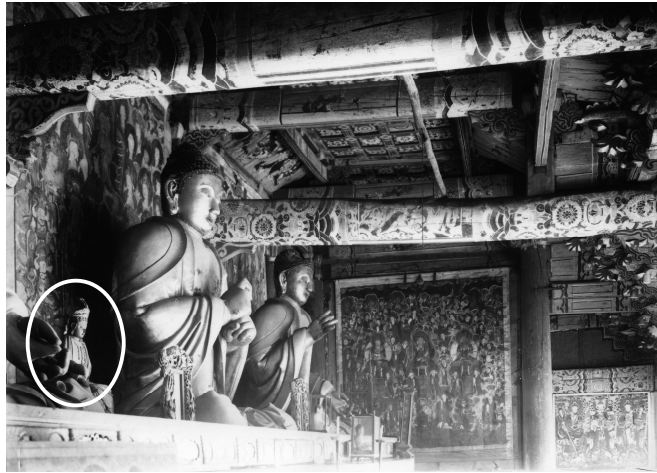


Fig. 1.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 *Dry-lacquered Bodhisattva of Kirimsa Temple*, 1501, Kirimsa Monastery, Kyōngju (Korea Heritage Service, <https://www.khs.go.kr>)

Fig. 2.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 유리건판사진(32062)> *Dry Plate Photograph of the Clay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of Kirimsa Temple*, Early 20th Century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아쉽게도 <기림사 건칠보살상>과 관련된 기록은 많지 않다. 기림사에서 간행된 1740년 『신라함월산기림사사적(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을 비롯하여 이후 간행된 문헌 자료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가장 이른 자료는 1920년에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으로 기림사 대적광전 불단 위에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과 함께 봉안된 모습이다(Fig. 2). 1970년대에는 중로전으로 이운되었고, 1991년에 경주 기림사 유물전시관이 개관하면서 옮겨져 현재까지 단독 유리장 안에 봉안되어 있다.²

한편, <기림사 건칠보살상>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20여 구의 건칠불상 가운데 가장 먼저 보물로 지정되었다.³ 본격적인 보존·과학 조사는 2008년에 X-ray, 2021년에 3D-CT 촬영이 실시되었다. 통상적인 건칠불상은 최소 5~7겹의 건칠층이 확인된다. 반면, <기림사 건칠보살

있지 않고 1920년 기림사 대적광전 유리건판 사진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18세기 중반~1920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2 기림사 중로전 부분에 “건칠보살좌상안치”라고 기록되어 있어, 적어도 1975년부터 중로전에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 『전국사찰현황실태조사서: 기림사 82』(1983), pp. 180-182.

3 1965년에 보물 제415호로 지정되었지만 2021년 11월 19일 이후 지정번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상)은 여러 겹의 건칠층이 확인되지 않고 그 위에 섬유 반죽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어 일반적인 한국 건칠불상의 제작기법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⁴ 제작연도를 확실히 알 수 있고, 재질과 조성 기법이 특징적인 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독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반가좌’로 지정명칭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세에 대해 통일되지 못한 몇 가지 견해가 존재하며, 묵서명 관독, 관련 신앙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⁵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미술사 연구와 과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림사 건칠보살상>의 조성배경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의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묵서명을 재해석하여 원봉안처와 주요 발원자를 중심으로 조성배경과 ‘낙산관음’으로 조성된 신앙배경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1501년에 조성된 기림사이며, 16세기 보살상으로서 <기림사 건칠보살상>이 지닌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 3D-CT 촬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림사 건칠보살상> 제작기법의 특징을 알아보고 건칠불상의 제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 문화재청, 『건칠불-한국의 불상 X-ray 조사보고서 I』 (2008), pp. 89-97; 『2021년 중요동산문화재 불상기록화 보고서』 (2021), pp. 36-119.

5 <기림사 건칠보살상>의 자세에 대해 반가좌를 비롯하여 반가유회좌, 유회좌 등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반가좌로 본 견해는 진홍섭, 『묵재한화』 (대원사, 1999), pp. 334-335; 최은령, 「조선초기 건칠불상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건칠보살입상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p. 13 등이 있다. 반가유회좌로 본 견해는 김광희, 「16세기菩薩像 연구」, 『문물연구』 14 (2008), p. 107가 있으며, 유회좌는 서지인, 「高麗末 朝鮮 初의 觀音 및 地藏 遊戯坐像 研究」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p. 73; 송은석, 「麗末鮮初 補陀落迦山 觀音의 信仰과 美術」, 『불교미술사학』 28 (2019), p. 261 등이 있다. 관련 신앙에 대해서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의 복장 유물로 추정되는 『관음에문합철불설아미타경』과 기림사가 바다와 인접한 점, <기림사 건칠보살상>이 유회좌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관음예참 및 해양 신앙과의 연관성을 제기하였다(서지인, 위의 논문 (2015), pp. 73-89). 필자도 <기림사 건칠보살상>이 해양 신앙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림사 건칠보살상>의 원봉안처가 기림사가 아닌 함월산 서수암이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같은 사찰의 불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의 조성연대는 1564년에 중수했다는 「개금중수기」 기록을 통해 16세기 전반으로 추정하지만 1501년보다 이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림사 건칠보살상> 조성에 영향을 주었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 새로운 근거로 낙산 관음 및 해양 신앙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II.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 목조대좌의 묵서명 분석

1. 원봉안처와 발원자

<기림사 건칠보살상>의 목조대좌는 상하 2개로 나뉘는데, 대좌의 상단부를 들어 올리면 하단부의 나무 판재 윗면에 전체 7줄의 묵서가 적혀있다(Fig. 3). 기존의 관독은 묵서명 전체를 해석하지 않았으며, 이미 관독된 묵서 가운데에도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⁶ 조성배경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알아보려고 기존의 해석과 새로운 관독을 비교하여 살폈다(Table 1).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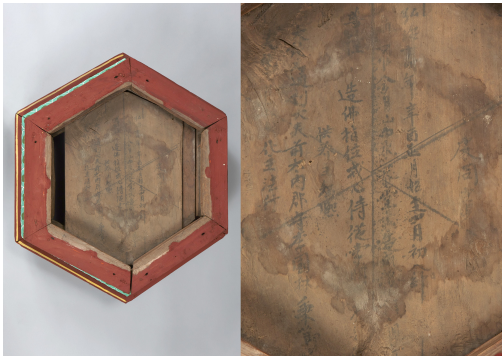


Fig. 3.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 대좌의 묵서명> Inscription in Ink on the Pedestal of the Dry-lacquered Bodhisattva of Kirimsa Temple, 1501, Kirimsa Temple, Kyŏngju (Korea Heritage Service, <https://www.khs.go.kr>)

- ① 같은 곳을 수호하다.」
- ② 흥치 14년(신유) 정월에 시작하여 사월초파일에 끝나다.」
- ③ 신라 함월산 서수암 당주로 낙산관음보살을 조성하다. 」
- ④ 조불지위 계심, 시종 …」 ⑤ 공양주 지희.」
- ⑥ 대화주 통훈대부 전 태내군수 이원립. 병절」 ⑦ … 화주 범행.」

6 진홍섭, 앞의 책 (1999), p. 336; 문화재청, 『한국의 사찰문화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I 자료집』 (2007), p. 170; 문화재청, 앞의 책 (2021), p. 55.

7 최근에 촬영한 고해상도의 사진을 확보하여 새롭게 관독할 수 있었다. 기존에 '處同空口'라고 읽고 해석하지 않았던 부분을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하였다. 두 번째 줄의 마지막 글자를 '日'에서 '訖'로 관독하여 조성을 끝냈다는 의미를 확실히 하였다. 가장 마지막 줄에 정확히 읽을 수는 없으나 더 많은 글자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또 다른 양반 계층의 인물이 조성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Table 1>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 목조대좌 묵서명 판독 비교

Decipherment Comparison of the Wooden Pedestal Ink Inscription for the *Dry-lacquered Bodhisattva of Kirimsa Temple*

Original Decipherment of the Ink Inscription	New Decipherment of the Ink Inscription
<p>處同空 弘治十四年辛酉正月始至四月初八日 新羅含月山西水菴堂主造 造佛指位戒心侍從李明大 供養主智熙 大化主通訓大夫前太內郡守李園林秉節 化主法行</p>	<p>①處同守護 ②弘治十四年辛酉正月始至四月初八日 ③新羅含月山西水菴堂主造成洛山觀音菩薩 ④造佛指位戒心侍從明大 ⑤供養主智熙 ⑥大化主通訓大夫前太內郡守李園林秉節 ⑦... 化主法行</p>

묵서명은 발원자들의 결의를 시작으로 조성기간, 조성대상, 발원자 순서로 쓰였다. 묵서①은 보살상을 조성하는 곳과 보살상을 지킨다는 의미로 ‘같은 곳을 수호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뒤이어 나오는 여러 명의 발원자와 조성에 관한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이어서 묵서②에 ‘정월에 시작하여 초파일에 끝냈다’고 하여 조성에 약 3개월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묵서③은 앞서 서술한 것처럼 함월산 서수암의 당주, 즉 주존(主尊)으로 ‘낙산관음보살’을 조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확실한 존명을 알 수 있다.⁸ 함월산에 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찾을 수 있으나 서수암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⁹ 각종 지리지나 사찰 관련 문서들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데, 지리지에 언급될 만큼 규모가 크지 않거나 기림사, 혹은 함월산에 위치한 사찰의 소속 암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묵서④-⑦은 발원에 참여한 인물에 관한 것으로 조불지위 계심, 시종 □□, 공양주 지희, 대

8 ‘당주’라는 표현이 전각의 주존을 의미하는 것은 다른 불보살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南瞻部洲高麗國瑞州地浮石寺堂主觀音鑄成結緣文.” 정은우, 「西日本地域의 高麗佛像과 浮石寺 銅造觀音菩薩坐像」, 『동양미술사학』 14 (2013), p. 80; “伽耶山文殊寺堂主彌陀腹藏發願文.” 강인구, 「瑞山 文殊寺 金銅如來坐像 腹藏遺物」, 『미술자료』 18 (1975), p. 5; “開心社堂主無量壽如來.” 최성은, 「13世紀 高麗 木造阿彌陀佛像과 腹藏墨書銘」, 『한국사학보』 30 (2008), p. 116.
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21, 「경주부」, “含月山在府東四十五里新羅號南嶽.”

화주 이원립, 병절 □□, 화주 범행 등 최소 6명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계심(戒心)과 범행(法行)은 각각 공양주 지회와 <기림사 건칠보살상>을 조성하기 전후로 다른 불사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동안 대화주로 참여한 ‘이원립(李園林)’에만 집중되어 양반의 개인 발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⁰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름이 확인되는 모든 인물, 특히 공양주로 참여한 승려 지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문서④의 조불지위(造佛指位)는 불상 조성을 지시하는 증명과 같은 역할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시종(侍從)은 그를 따라 불상 조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 각각 계심과 2명 이상의 인물이 맡았다.¹¹ 계심은 <기림사 건칠보살상>을 조성한 1501년을 전후로 여러 불서 간행에 참여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계심이 1493년에 무량사에서 『묘법연화경』 간행에 참여한 것인데, 당시 감독이 바로 <기림사 건칠보살상>의 공양주 지회이다.¹² <기림사 건칠보살상> 조성 이전, 두 인물이 무량사에서의 불사를 통해 인연을 맺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지회 연표> Chi Hüi's Timeline

Year 연도	Activity 활동	Temple 주석 사찰	Remarks 비고
1481	Met with Nam Hyoon	P'yohunsa (Head Monk)	Before 1490, Head Monk at Kwangmyŏngsa in Kaesŏng
1485	Met with Nam Hyoon		
1487	Began the printing of the <i>Śūraṅgama Sūtra</i>	Muryangsa	
1488	Participated as a major patron in the publication of <i>Essentials of the Śūraṅgama Sūtra</i>		Publication by Muryangsa
1491	Tŏgwŏn'gun commissioned the printing of the <i>Lotus Sūtra</i>	Muryangsa	August 1492, Kim Sisŭp began staying at Muryangsa
1493	Commissioned by Prince Tŏgwŏn, Publication of the <i>Lotus Sūtra</i> , Supervised the Publication of the <i>Śūraṅgama Sūtra</i>		
1501	Created the Dry-lacquered Bodhisattva of Kirimsa, Kyŏngju	Sŏsuam at Mt. Hamwŏl	

10 김광희, 앞의 논문 (2008), p. 107; 유혜인, 「朝鮮時代 乾漆佛像 研究」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pp. 95-101; 또는 문서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원자나 그 계층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11 최소 4개의 글자가 더 있었을 것으로 확인되어 2명 이상의 승려가 적혀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판독하기 어렵다.

12 『묘법연화경』, “幹化全廣明寺住持智熙 …… 戒心”; 大光寺版 『선림보훈』, “嘉靖四年乙酉孟夏順天地母後山大光寺開刊 …… 刻手 戒心”; 『高峯和尚禪要』, “刻手 戒心” 등 대체로 각수로 참여하였다. 조선시대 불서인명 DB 참고.

1517	Recorded in the <i>Mojaejip</i>		Published in 1639, Written in 1517-1518
1518			
1528	Excavated Sōkp'aryōng	Udu Temple, Ch'unch'ōn	Recorded in <i>Imhap'ilgi</i>
	Participated as a carving artist in the <i>Dacheng qixin lun</i>		Publication by Sinansa, Chōlla-do
1529	Participated as a major patron in <i>T'ongnok ch'waryo</i>		Described as "Head Monk of Tansōksa, Grand Sōn Master, and pure disciple Chi Hūi"
1536	Participated as a carving artist in the <i>Transmission of the Lamp</i>		- Publication by Sinhūngsa, Hadong The donor Pōp'aeng(法行) also appears in the ink inscription
1539	Received a poem from No Susin (1515-1590)	Temple at Mt. Kūmgang	Recorded delivery in <i>Sojaejip</i>

목서⑤는 주요 발원자 중 한 명인 공양주 승려 지희이다. 지희의 정확한 생몰연도는 알 수 없지만, 문헌 자료를 통해 1400년대 후반부터 1500년대 초까지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2). 현재 확인되는 기록에 의하면 지희는 1485년까지 금강산 표훈사에 주석하였으며 남효온(南孝溫, 1454~1492)과 친분을 쌓았다.¹³ 1487년부터는 무량사에 주석하며 다수의 불서 간행을 주도하였다. 특히 덕원군(德原君, 1449~1498)이 발원한 『묘법연화경』을 판각하였으며, '화엄사(華嚴師)'로 칭해졌다.¹⁴ 그리고 1493년에 지희의 감독으로 간행된 『수능엄경』 역시 덕원군이 발원하고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이 「발문」을 작성하였는데, '세상 밖에 사는 옛 친구가 있으니 화엄사 지희'라고 기록되었다.¹⁵ 1501년에는 <기림사 건칠보살상> 조성에 공양주로 참여하였다. 당시 공양주는 사찰의 대중이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의 조달을 맡았다.¹⁶ 원봉안처인 서수암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암자였을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희가

13 『추강집』 권2, 「贈表訓住持智熙」; 『추강집』 권5, 「住持智熙者. 雲山故人. 待余甚厚. 燃燈饋茶. 茶退饋飯.」 한국고전종합DB 참고.

14 『묘법연화경』 발문 중에는 「華嚴師智熙居萬壽山無量寺刊, 시주질에는 「幹前廣明寺住持大師智熙」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국고전종합DB 참고.

15 「王子秋, 予訪西海之名山. 有故舊方外, 華嚴師智熙, 在萬壽山無量寺, 倩漢京能楷者朴耕書一部, 字楷精研. 刊梓始於丁未春, 訖於戊申秋, 鐫切既畢, 請余跋.」 최영성, 「김시습과 무량사의 관계-몇 가지 문헌 고증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9 (2019), pp. 193-198.

16 이종수·허상호, 「17-18세기 불화의 『畫記』 분석과 용어 考察」, 『불교미술』 21 (2010), p. 145.

서수암에 주석하며 암자를 운영하고 <기림사 건칠보살상> 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후에도 경상도, 강원도 춘천 등지에서 활동이 확인되어 포교를 위해 여러 사찰에 주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⁷

한편, 지회는 광명사와 표훈사에서 주지를 역임하며 당시 유행했던 금강산의 불상 봉안에 대해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량사에 주석할 때 왕실 발원 불사로 이루어진 무량사 석탑 중수가 진행되었는데, 이때 불상도 함께 봉안되었다.¹⁸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회는 당시 유행한 왕실 양식 불상에 대해 인식하였고, 이후 1501년 <기림사 건칠보살상>을 조성할 때 반영하였을 것이다. 즉, <기림사 건칠보살상> 발원자에 왕실 인물, 혹은 왕실 관련 인물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을 중심으로 유행한 양식이 반영된 데에는 지회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양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I장에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어서 묵서⑥은 대화주로 참여한 ‘전 통훈대부 태내군수 이원림’이다. 당시 경주의 양반가인 『경주이씨족도』에 군수(郡守)를 지낸 이원림(李元林)이 등장하여 동일 인물임을 추정할 수 있다.¹⁹ 추가로 1477년 『성종실록』에 재령군수(載寧郡守)로 임명된 이원림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어 묵서명에 적힌 태내(太內)는 아니지만, 군수에 임명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이원림은 1400년대 중후반에 고위 관료 집안에서 태어나 관직을 지냈으며 경주와 관련이 깊었던 인물이다.²¹ 그가 맡은 대화주는 화주를 공덕에 따라 구분한 것의 하나로, 사찰의 불서(佛書)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소임이다.²² 따라서 <기림사 건칠보살상>을 발원했을 때는 그가 어느 정도 관직을 지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시기라고 추정할 수 있다.

17 『모재집』 「次僧智熙詩軸韻」, “誰把眞源一路通. 紛紛餘子摠途窮. 雲蹤縱脫塵喧外. 只恐模尋亦落空.”; 『동록촬요』, “大施主. 前斷俗寺住持大禪師戒澄. 衲智熙.”; 『묘법연화경』 「발문」, “…… 壬子秋, 予訪西海之名山. 有故舊方外, 華嚴師智熙…….”; 『소재집』 제1권, 「次韻贈智熙 - 甲午日」, “落落禪風遠. 深深夏景暉. 誰知盪胸內. 盡有一山奇. 醞藉眞歸話. 清新偶發詩. 焉知是能忍. 不必遇安期.” 한국고전종합DB 참고.

18 1490년을 전후로 무량사 석탑 중수와 불상 봉안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회가 무량사에서 불서 간행에 참여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김추연,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봉안 불상 연구」, 『미술사연구』 39 (2020), pp. 54-56.

19 『고문서집성』 권65, pp. 944-946. 한국학자료센터 참고; 묵서명에는 ‘李圓林’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李元林’을 기록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같은 음의 다른 한자를 기록한 경우는 종종 확인된다. 실록 등의 기록을 통해 대화주로 보살상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반으로는 군수로 임명되었던 것이 확인된 ‘李元林’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 『성종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20일, “李元林爲載寧郡守. …… 都摠府部將侍仕滿選官之法, 載在《大典》, 今者都摠府經歷李元林仕未滿, 而爲載寧郡守, 亦違於法, …… 傳曰: “朴叔葵則予令書六曹參議以啓耳, 宋叔琪, 李元林事, 當問諸吏曹.”

21 이원림의 아버지 이점과 동생 이형림에 관한 문헌 자료를 통해 경주와 관련이 깊은 고위 관료 집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李點 朝謝帖」, 1423년; 「李亨林 告身」, 1479년. 한국학자료센터 참고.

22 이종수 · 허상호, 앞의 논문 (2010), p. 147.

이원림에 이어서 적힌 ‘병절」□□’은 ‘병절교위(秉節校尉)’를 줄여 쓴 것으로 추정된다. 병절교위는 조선시대 중6품 무관에게 주던 품계로, 이원림 외에 또 다른 양반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정3품 통훈대부로 기록된 이원림보다 낮은 품계였기 때문에 두 번째로 기록된 것이며, 공간이 부족하여 다음 줄에 이어서 이름을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목서⑦에 회주를 맡은 법행은 승려로서 민가에 다니면서 사람들로 법연(法緣)을 맺게 하고, 시주를 받아 절의 양식을 대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536년에 간행된 『경덕전등록』에 지회와 함께 시주질로 확인되어 두 인물의 관계가 꽤 오랜 기간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발원자 중 양반인 이원림, 병절□□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승려로 확인된다. 특히 공양주 지회는 다수의 사찰에 주석하며 일찍이 왕실 불사를 비롯한 여러 불사에 참여하고 주요 소임을 맡았다. 그는 화엄사로 불릴 만큼 불교계에서 덕망 높은 승려였으며, <기림사 건칠보살상>을 조성하기 전후에도 여러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불사를 이어갔다. 목서의 내용과 지회의 역할을 종합하면 <기림사 건칠보살상>은 이원림의 개인 혹은 양반 계층의 발원으로 보는 것이 아닌, 양반 계층의 경제적 후원을 바탕으로 승려가 중심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낙산관음으로서 <기림사 건칠보살상>

불교가 한국에 전래된 이후, 시기를 막론하고 관음보살을 비롯한 다양한 존명의 보살상에 예배의 대상으로 조성되었다. 그 중 명확히 ‘낙산관음’으로 존명이 밝혀진 보살상은 <기림사 건칠보살상>이 유일하기 때문에 ‘낙산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존명과 더불어 <기림사 건칠보살상>은 여말선초 보살상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희좌를 취하고 있는 점도 특별하다. 지정명칭인 반가좌는 좌우 어느 한쪽 발이 반대편 무릎 위에 얹은 자세이다.²³ 반면, 유희좌는 <기림사 건칠보살상>처럼 한쪽 다리를 아래로 내리고, 반대쪽 다리는 무릎에 얹지 않고 허벅지 안쪽에 두는 것이다. 오른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는 표현도 유희좌와 함께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²⁴ 또한 원래 암좌 위에 앉아 있도록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보타락가산에 주처한 낙산

23 반가사유상이 취한 자세와 비슷하여 지정명칭이 ‘반가좌’로 정해진 것으로 생각되며 <기림사 건칠보살상>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진홍섭, 앞의 책 (1999), pp. 334-335의 견해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생각된다.

24 왼손은 바깥쪽으로 하여 대좌를 짚고 있는데, 조각으로는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렵고 일본 大和文華館 소장 <수월관음도> 등 회화에서 간혹 확인된다. 서지인, 앞의 논문 (2015), pp. 2, 39.



Fig. 4.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의 대좌와 암좌> Pedestal and Rock Pedestal of the *Dry-lacquered Bodhisattva of Kirimsa Temple*, 1501 (Korea Heritage Service, <https://www.khs.go.kr>)

관음을 명확히 묘사했다고 볼 수 있다(Fig. 4).²⁵

한국 문헌기록에 낙산관음이라는 명칭이 확인되는 것은 13세기 무렵이다. 『동문선(東文選)』에 수록된 이규보(李奎報, 1169~1241)의 「낙산관음 복장수보문 병송(洛山觀音 腹藏修補文 并頌)」에 “낙산의 승지가 청정하여 수월(水月)의 수상(睟相)이 이곳에 의탁하였다”고 전하고 있다.²⁶ 낙산관음의 복장을 보수하면서 남긴 기록에 ‘수월의 수상’이라는 표현에서 수

²⁵ 현재는 목조대좌 위에 목조의자를 두었는데, 1970년대 사진에는 바위 모양의 암좌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필자가 기림사의 허락을 구해 사찰 내에서 암좌를 찾아보았지만 안타깝게도 망실된 것으로 확인하였다(2023년 8월 기준). 대좌와 암좌의 조합은 <금동관음보살윤왕좌상>(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소장), <금동관음보살윤왕좌상>(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관음보살윤왕좌상>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 당시 예외적인 조성은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송은석, 앞의 논문(2019), pp. 256-257.

²⁶ 『동문선』 권50, “洪惟東海之濱 洛山之上 有一勝境 淸淨無塵 水月睟相.”; 이밖에 『동문선』 권122, “到洛山禮觀音. 俄有二靑鳥含花落衣上. 又海水一掬許湧灌其頂.”; 권51, “北山洛山寺贊. 攝化髻中 盛諸光明 尋聲座側 插箇楊柳 忽驚巔角 宛爾影形 三土幾焦 儼傾甘霖 右寶瓶臺.”; 권110, “惟補陞洛山 有觀世音聖睟儀.” 등이 있다.

월관음과 낙산관음을 동일시 여겼다고 볼 수 있다.²⁷ 김구(金丘, 1211~1278)의 「낙산관음경 찬소」에 ‘화재로 소실된 보타락가산(寶陁洛伽山)의 관세음보살을 새로 조성하고 낙성식을 열었다’고 기록하였다.²⁸ 이규보의 글과 마찬가지로 낙산관음과 보타락가산의 관음보살을 동일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초신」에 의상대사(625~702)가 서역의 보타락가산의 영향을 받아 낙산이라 명하고, 보살상을 모신 곳이 낙산사라는 내용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²⁹ 이와 같은 내용은 고려 후기에 낙산사를 중심으로 낙산관음 신앙이 성행하고 관음보살상이 조성되었음을 알려준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낙산사조」와 남효온의 『추강집』에서도 여전히 고려시대 기록을 인용한 낙산사의 창건과 관음보살상 조성을 서술하여 조선 전기까지도 낙산관음신앙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³⁰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낙산과 낙산사는 한국 관음성지, 보타락가산이며 바다와 깊은 연관이 있다. 앞서 살펴본 『추강집』에서 설명한 낙산사로 가는 길에 대한 내용이 참고가 된다. ‘낙산사에 닿을 때까지 10여 리 혹은 20여 리인 저수지 6개와 큰 개[浦]와 큰 냇물[川]을 각각 2개씩 건넜으며, 세 개의 죽도를 지나는데 기암(奇巖)과 괴석(怪石)이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³¹ 어느 시대나 관음신앙이 기본적으로 내포한 현세이익적 성격과 고난구제의 역할이 해변과 바다라는 지리적 특징을 갖게 되어 해난구제 성격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³² <기림사 건칠보살상>의 원봉안처인 서수암이 위치한 경상도 함월산은 동해와 인접하여 있었기 때문

27 비슷한 시기에 수월관음에 대한 내용은 대각국사 의천(義天, 1055~1101)의 『大覺國師文集』에서 찾을 수 있다. 『常曉和尚請來目錄』, “水月觀世音菩薩像一軀, 右大悲之用, 化形萬方, 觀眾衆生, 拔苦與樂, 故示像相使物生信, 今見唐朝世人, 總以爲除災因, 天下以爲生福緣也. 是像此間未流行, 故請來如件.” 이때의 수월관음이 어떠한 형상이었는지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조각의 경우, 중당(中唐, 756~835) 이래 유희좌의 보살상이 다수 조성되었기 때문에 암산(巖山)을 배경 삼아 편안한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강희정, 「고려 수월관음도상의 연원에 대한 재검토」, 『미술사연구』 8 (1994), p. 13.

28 『동문선』 권110, “惟補陁洛山 有觀世音聖像.”

29 『삼국유사』 권3, “昔義湘法師始自唐來還, 聞大悲真身住此海邊嶺內, 故因名洛山, 蓋西域寶陁洛伽山. …… 乃作金堂塑像而安之, 圓容麗質儼若天生. 其竹還沒, 方知正是真身住也. 因名其寺曰洛山.”

3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洛山寺. 在五峯山, 新羅僧義相所建. 殿上安梅檀觀音一軀, 歷代崇奉, 頗有靈異. 我世祖幸此寺, 以殿舍隘陋, 命新之, 極宏壯. 高麗僧益莊記: “襄州東北降仙驛之南里有洛山寺, 寺之東數里許巨海邊有窟, 其高可百尺, 其大可容萬斛之舟. 其下海濤常出入, 爲不測之壑, 世稱觀音大士所住處也.”; 『추강집』 권5, “抵洛山寺, 所歷陂澤, 其大十餘里或二十餘里者六, 涉大浦二, 大川二, 過竹島三, 名巖奇石, 不知其幾也, 洛山者, 新羅僧義相所創. 寺僧傳其事跡云, 相見觀音親身於海邊窟中. 觀音親授寶珠, 龍王又獻如意珠, 相受二珠, 於是創寺. 取旃檀土, 手作觀音像, 今之海邊小窟, 乃其觀音所住也. 庭中石塔, 乃藏二珠塔也. 觀音塑像.” 한국고전종합 DB 참고.

31 각주 30의 『추강집』 권5 참고.

32 특히 고려 후기 무신집권기에는 외적의 침공을 막기 위해 관음상을 조성하고 관음도량을 개설하였다. 정병삼, 「관음신앙의 불교사적 의의와 신라 海水觀音」, 『한국고대사탐구』 44 (2023), pp. 18-20.

에 바다와 관련된 여러 위험이 존재하였다. 『연산군일기』 1498년 기록에 ‘신이 경상도에 있으면서 친히 지난해의 수재(水災)를 보았는데, 전고에 없던 것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으며, 1500년 기록에 ‘경상도는 적의 변을 당할 우려가 전라도보다 심하다.’는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³³

특히 원봉안처인 ‘서수암(西水巖)’을 문자 그대로 살펴보면 ‘서쪽 물가에 있는 암자’이다. 실제로 함월산에 있는 사찰과 암자 주변에서 물줄기가 흘러 동해, 문무대왕릉으로 이어진다. 이는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설명한 관자재보살의 자리, 산의 서쪽 골짜기에 시냇물이 굽이쳐서 흐르고 있는 묘사와 유사한 위치 및 형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서술한 <기림사 건칠보살상>의 주요 발원자인 승려 지희는 금강산 표훈사의 주지를 맡는 동안 인근에 위치한 낙산사와 낙산관음신앙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즉, 화엄에 능통했던 지희가 바다와 인접한 함월산 서수암에 주석하면서 해난 구제를 목적으로 이곳을 제2의 낙산관음 신앙의 성지로 여기고 ‘낙산관음보살’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Ⅲ.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의 도상 및 양식 특징

<기림사 건칠보살상>은 전체적으로 허리가 길어 세장화된 모습이며, 유희좌를 취하고 천의와 군(裙)이 상현좌를 이룬다.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에서는 강한 양감이 나타나는 반면, 가슴에는 양감이 거의 표현되지 않고 편평하다. 이는 1967년, 개금 보수 당시 두꺼운 개금으로 인해 변화한 것으로 보이며, 이때 복부까지 이어졌던 목걸이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된다.³⁴ 장신구는 목걸이와 귀걸이, 팔찌만 착용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단조로운 느낌을 준다. 이에 반해, 여말선초에 조성된 건칠보살상은 귀걸이, 목걸이 등 각종 장신구와 함께 무릎까지 이어진 화려한 영락을 착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덕 장륙사 건칠관음보살좌상>(1395), <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1447 중수) 등이 있다. <영덕 장륙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대구 파계

33 『연산군일기』 권29, “臣在慶尙道, 親見去年水災, 前古所無.”; 권37, “全羅道沿海郡縣… 距海纔數十里 皆賊路要害之地 而守令多非武臣 何能操兵禦敵乎? 若值賊鋒 臣恐望風縮首 莫敢誰何 請令其道節度使申勅 預爲措置 且擇遣有武才守令. 且慶尙道賊變可畏 甚於全羅”. 한국고전종합 DB 참고.

34 경향신문 1967년 10월 30일 5면 기사. 당시 문화재위원이었던 진홍섭 선생은 ‘기림사 승려들이 기림사 건칠보살좌상의 건칠도금이 추하게 낡고 벗겨졌다해서 말끔히 개금한 것까진 좋았는데 콧수염까지 그려넣는 지나친 화장으로 보물로 지정키로 했을 때의 면모와는 판관이 되어버렸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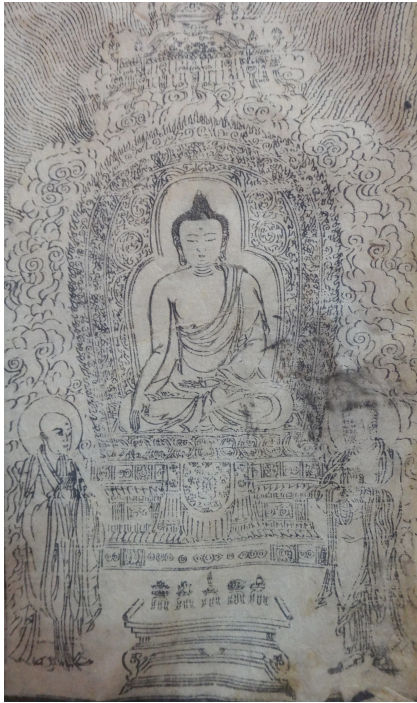


Fig. 5. <『諸佛如來菩薩名稱歌曲』 변상관화>
Woodblock Print of *Songs for the Names of Various Buddhas and Bodhisattvas*, 1417, Pogwangsa Temple, Sokch'o (Photograph by Im Yöngae)

사 건칠관음보살좌상)과 같은 여말선초 건칠보살상은 장엄하고 화려한 느낌을 주는 반면, <기림사 건칠보살상>은 간결하고 절제된 모습이 두드러진다.

1501년에 조성된 <기림사 건칠보살상>은 15세기와 16세기 보살상의 특징을 모두 지녔다. 먼저, 15세기 불상 양식에 속하는 것은 상호 표현, 상체가 길어져 세장한 신체 비례 등이 있다. 이는 왕실 발원 불상으로 추정되는 <도갑사 약사여래좌상>(15세기 중엽 추정), <영주 흑석사 아미타목조여래좌상>(1458)과 <천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5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특징이 당시 왕실을 중심으로 유행한 명대 티베트 양식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명대 티베트 양식은 1417년, 영락제(재위, 1402~1424)에 의해 편찬된 『제불여래보살명칭가곡(諸佛如來菩薩名稱歌曲)』(이하 『명칭가곡』)의 기본도상으로 당시 수많은 관화, 불화, 벽화 등의 범본이 되었으며, 조선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Fig. 5).³⁵ 1461년, 간경도감이 설치되면서 『명칭가곡』 변상관화를 밑그림으로 한 불경도 지속적으로 번각되었다.³⁶ 『명칭가곡』을 중심으로 당시 명에서 유행하는 티베트 양식

이 함께 유입되어 관화를 시작으로 불상에도 반영된 것이다.³⁷ 좁은 어깨와 세장화된 신체 비례를 특징으로 하는 명대 티베트 양식의 불상은 왕실을 중심으로 한동안 유행하였으나 일반화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³⁸ 양식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마지막 상이 <기림사 건칠

35 1417년, 영락제(재위, 1402~1424)에 의해 편찬된 『명칭가곡』은 명에서 적극적으로 전달한 불교 관련 서책 중 하나로, 편찬된 해부터 3년 동안 총 1,300여 부가 조선에 전달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명칭가곡』 관련 기사는 1417년부터 1434년까지 총 14회 보인다. 임영애, 「조선시대 사천왕상 존명의 변화」, 『미술사학연구』 265 (2010), pp. 80-84; 정형우, 「『제불여래보살명칭가곡』의 수입과 그 보급·송습 문제」, 『동방학지』 56 (1987), pp. 719-721.

36 1448년 효령·안평대군 발원 『법화경』 변상관화를 비롯하여 1459년 광평대군부인 신씨 발원 『묘법연화경』 변상관화 등 『명칭가곡』을 범본으로 새롭게 판각한 수많은 변상관화가 전해진다. 임영애, 위의 논문 (2010), pp. 85-86.

37 명대 티베트 양식의 영향을 받은 불상은 1453년에 조성된 금동아미타삼존불상을 비롯한 10cm 내외의 금동불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은주, 「조선초기 금동불상에 나타나는 명대 라마불상양식의 영향」, 『강좌미술사』 15 (2000), pp. 52-58.

보살상)이며, 불과 1년 후에 조성된 <사천 백천사 목조보살좌상>에서는 극도로 세장화되고 이후로는 확인되지 않는다(Fig. 6).



Fig. 6. <사천 백천사 목조보살좌상> *Wooden Seated Bodhisattva Statue of Paekch'onsa Temple, 1502, Paekch'onsa Temple, Sach'ŏn* (Korea Heritage Service, <https://www.khs.go.kr>)

Fig. 7. <완도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Wooden Seated Bodhisattva Statue of Kwanŭmsa Temple, 1569, Kwanŭmsa Temple, Wando*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8. <제주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Wooden Seated Bodhisattva Statue of Sösansa Temple, 1534, Sösansa Temple, Cheju* (Korea Heritage Service, *Han'guk ūi sach'al munhwaje*, p. 519)

16세기 보살상의 특징은 수발(垂髮)의 생략, 보계 및 장식구의 간략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발이 생략되는 것은 <완도 관음사 목조보살좌상>(1569), <금산 신안사 목조아미타삼존상>(16세기)의 협시보살상 등으로 이어진다(Fig. 7). 보계와 장식의 간략화는 <사천 백천사 목조보살좌상>(1502), <제주 서산사 목조보살좌상>(1534)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Figs. 6, 8). 이러한 특징은 여래상과 구별하기 위해 자비로운 여성의 모습으로 형상화하던 보살상의 상징적 표현을 단순화하고 여래상의 이미지에 가깝도록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

38 불화에서는 <함창 상원사 사불회탱>(1562) 등 16세기 중엽까지 확인되지만, 같은 시기 불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원인은 시주 계층의 변화, 새로운 양식의 유행 등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인한 자료의 손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소림, 「혹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연구-15세기 불상양식의 일 이해-」, 『강좌미술사』 15 (2000), pp. 97-98.

어 보살의 존격이 여래만큼 상승되고, 예배대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기림사 건칠보살상>도 단독 예배대상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면으로 관음보살을 마주하고자 하는 발원자의 의지가 발현된 것이다.³⁹



Fig. 9. <목조보살입상> *Wooden Standing Bodhisattva Statue*, Early Chosŏn, National Museum of Korea, Tŏksu 3365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10. <청동관음보살좌상> *Bronz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Mid-to-late 15th Century, Ming,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Photo Courtesy of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기림사 건칠보살상>은 전통적인 착의법이 표현되었는데,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솔 형태의 넓은 천의를 걸쳐 어깨와 등 대부분을 덮고 있다.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는 표현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보살상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목조보살입상(덕수 3365)>과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청동관음보살좌상>(명 15세기 중후반) 등에도 표현되었다(Figs. 9, 10).⁴⁰ 둘째, 군 상단이 뒤집혀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요포를 사용하여 군 상단을 보완한 것이다. 주로 통일기 신라 보살입상에 나타나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앞서 살펴본 인천

39 측면을 향하던 관음이 정면을 향하는 도상의 변화는 고려 후기 불화에서 확인되며, <도감사 관음32응신도>(1550) 등 조선 전기까지 이어진다. 김수현, 「佛畫에 나타난 韓國 觀音信仰의 變遷」, 『역사민속학』 23 (2006), pp. 17-21.

40 <청동관음보살좌상>은 원대 불상과 구별되는 명대 불상의 양식적 특징이 분명하고 여성적인 관음보살상이 15세기까지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명대 전기, 영선 연간(永宣, 1430-1435) 이후로 추정하였다. 배진달(배제호), 「女性 轉身形 觀音菩薩像의 一例-仁川市立博物館 소장의 明代 觀音菩薩坐像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35 (2005), pp. 225-228.

시립박물관 소장〈청동관음보살상〉과〈서울 보타사 금동보살좌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현좌의 표현으로 하반신과 대좌 위에 자연스럽게 입체적인 균의 옷주름이 형성되었다. 상현좌는 통일기 신라까지 유행하였다가 사라진 후 조선 전기에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양양 낙산사 건칠보살좌상〉,〈예산 보덕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등 옷주름 표현에 유리한 건칠불상에서 주로 나타난다(Figs. 11, 12).



Fig. 11. 〈양양 낙산사 건칠보살좌상〉 *Dry-lacquered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Naksansa Temple*, Early 15th Century, Naksansa Temple, Yangyang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12. 〈예산 보덕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Dry-lacquered Seated Amitabha Buddha of Podöksa Temple*, Mid-15th Century, Podöksa Temple, Yesan (Photograph by the author)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은 보계를 보호하는 보계 덮개이다. 현재는 사라졌지만 유리건판 사진과 1970년대에 촬영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Fig. 13). 보계 덮개는 불화에 자주 등장하며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꾸준히 나타난다.⁴¹ 조각으로는〈도갑사 보살상〉과〈부안

⁴¹ 조선 전기 불화 중〈함창 상원사 사불회탱〉(1562), 일본 四天王寺 소장〈영산회상도〉(1587)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 유산청, 앞의 보고서 (2021), p. 54.

개암사 목조석가삼존불>(17세기 전~중엽)의 협시보살에서도 확인되어 다른 보살상도 조성 당시에는 보계 덮개가 있었을 가능성을 알려준다(Figs. 14, 15). 또한 <기림사 건칠보살상>의 보관에는 화불이 생략되었다.⁴² 이는 관음이 취하는 자세인 유희좌를 하고 천의를 걸친 짐, 중간 암좌 등으로 관음보살임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화불의 생략은 일본 사이후쿠지[西福寺] 소장 <수월관음도> 등 비슷한 시기 불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Fig. 13.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 보계 덮개> Cover for the Pogye of the Dry-lacquered Bodhisattva of Kirimsa Temple, Photographed in the Early 20th Century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14. <도갑사 보살상 보계 덮개> Cover for the Pogye of the Bodhisattva of Togapsa Temple, Photographed in the Early 20th Century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15. <부안 개암사 목조석가삼존불 보계 덮개> Cover for the Pogye of the Wooden Seated Sakyamuni Triad of Kaeamsa Temple, Mid-to-late 17th Century, Kaeamsa Temple, Puan (Photo Courtesy of the Kaeamsa Temple, Puan)

⁴² 보관은 위쪽이 넓은 원통형이며, 앞쪽은 상하 2단으로 나누어 ningulmun을 새겼다. 보관 앞쪽에는 곳곳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별도의 장식을 부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자에 따라 보관이 조성 당시의 것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3D-CT 촬영 결과, 앞쪽 일부는 금속으로 제작된 조성 당시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뒷편은 보수된 것으로 앞뒷편을 천으로 감싸 연결한 상태이다. 문화재청, 앞의 보고서 (2021), p. 71.

IV.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 제작기법과 건칠불상의 제작 감소

한국의 건칠불상은 초기 건칠불상 2구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포층수와 두께로 제작되었다.⁴³ 그 원인은 건칠불상의 조성이 약 1세기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성행하여 제작기법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X-ray 및 3D-CT 촬영조사 결과, <기림사 건칠보살상>은 통상적인 건칠불상의 제작기법과 몇 가지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림사 건칠보살상>은 삼베를 겹겹이 붙여 제작한 층이 확인되지 않는다. 부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불두와 불신의 가장 안쪽에만 삼베로 추정되는 층이 있을 뿐이다. 통상적인 건칠불상의 건칠층 수는 상의 크기나 불신의 부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적은 경우 5~7층, 보통은 10~12층이 확인되어 <기림사 건칠보살상>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기림사 건칠보살상>의 소조 원형은 대략적인 크기와 신체 부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제작되었다. <영덕 장류사 건칠관음보살좌상>(1395)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다(Fig. 16). <영덕 장류사 건칠관음보살좌상>과 같은 통상적인 건칠불상은 제작 과정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소조 원형을 완성된 불상과 유사하게 만들고 얇은 건칠층을 여러 겹 올린다. 반면, <기림사 건칠보살상>은 소조 원형을 최소한으로 제작하여 제작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간소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여러 겹의 삼베층 대신 섬유 반죽을 사용하였다. 얇은 삼베층 위에 섬유 반죽을 3차례 올려 두께를 두껍게 하고 세부 표현을 하였다. 섬유 반죽의 가장 안쪽 층은 광물질로 추정되는 입자와 흰색 반점으로 이루어졌는데, 입자는 X-ray가 투과하기 어려운 고밀도에 크기가 불균일하고 거친 것으로 관찰된다. 중간층은 불균일한 크기의 입자가 현저히 줄어들며, 이목구비와 턱선, 옷주름 등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었다. 표면층은 매우 고운 입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관찰되며, 이목구비, 천의, 옷주름의 형태를 세밀하게 완성하였다. 즉, 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입자가 고운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토(粗土), 중토(中土), 표토(表土)의 순서로 올려 형태를

43 가장 이른 건칠불은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9세기)과 <합천 해인사 건칠회랑대사좌상>(10세기)이 있다. 두 불상 모두 앞면과 뒷면을 별도로 제작하여 붙이는 등 여말선초 건칠불상과는 다른 제작기법이 확인되었다. 정은우,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의 특징과 제작시기 검토」, 『미술사연구』 32 (2017), pp. 10-11; 정은우·민환, 「奉化 淸涼寺 乾漆藥師如來坐像의 재료 및 제작기술 연구」, 『한국문화』 54 (2020), pp. 122-129.

제작하는 일반적인 조소상 제작기법과 같다. 세 개의 섬유 반죽층은 불상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 불두가 약 1.2~2.4cm, 불신은 0.6~2.7cm 내외로 확인된다.⁴⁴ 통상적인 건칠불상은 회칠 혹은 투명칠로 베를 겹겹이 붙인 포층, 즉 건칠층만으로 형태를 만들며, 두께가 절반에 해당하는 약 0.5~1cm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Fig. 17).



Fig. 16.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과 장륙사 건칠관음보살좌상의 단면 비교> Cross-sectional Comparison of the Dry-lacquered Bodhisattva of Kirinsa Temple (Left) and Dry-lacquered Seated Avalokitesvara of Changnyuksa Temple (Right) (Korea Heritage Service, 2021 *nyŏn chungyo tongsan munhwajae pulsang kirok'wa pogosŏ: sajin mit tomyŏn*, pp. 36,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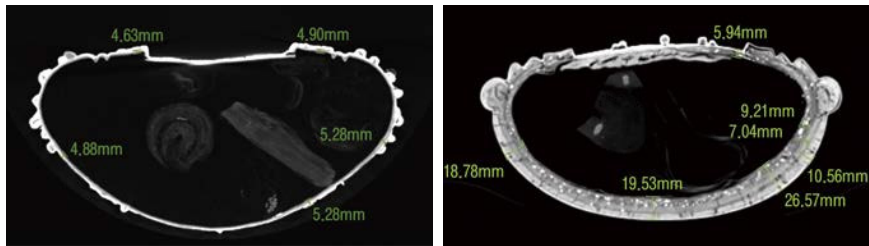


Fig. 17.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과 장륙사 건칠관음보살좌상의 두께 비교> Thickness Comparison of the Dry-lacquered Bodhisattva of Kirinsa Temple (Left) and Dry-lacquered Seated Avalokitesvara of Changnyuksa Temple (Right) (Korea Heritage Service, 2021 *nyŏn chungyo tongsan munhwajae pulsang kirok'wa pogosŏ: sajin mit tomyŏn*, pp. 36,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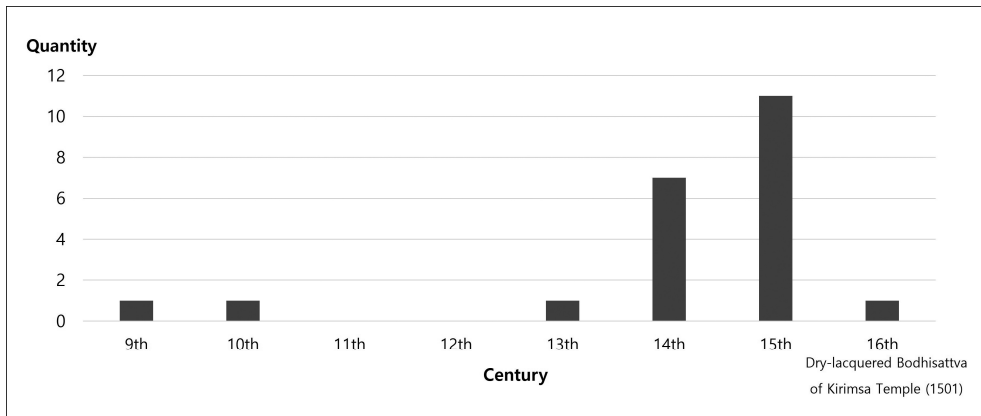
⁴⁴ 문화재청, 앞의 보고서 (2021), pp. 62-70.

kirok'wa pogosŏ, p. 66)

제작 과정에서 섬유 반죽을 사용한 건칠불상에는 <기림사 건칠보살상> 이외에도 <영덕 장륙사 건칠관음보살좌상>과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이 있다. 다만, 두 건칠불상의 두께는 0.5cm~1cm 내외로 얇으며, 이는 <기림사 건칠보살상>의 두께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또한 포층은 각각 7층, 5층으로 확인되어 일반적인 한국 건칠불상 건칠층에 속한다. 즉, 장륙사와 심향사의 두 건칠불상 모두 여러 겹의 건칠층을 올렸지만, 그 두께는 매우 얇다.⁴⁵ 반면, <기림사 건칠보살상>은 여러 겹의 삼베층이 확인되지 않고 두께가 두꺼운 점에서 두 불상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제작에 사용된 삼베나 옷칠의 양과 제작기간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림사 건칠보살상>은 소조 원형을 간단히 제작하고, 삼베와 옷칠을 적게 사용하는 대신 섬유 반죽을 여러 차례 올리는 기법을 고안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묵서명의 내용과 같이 약 3개월 만에 완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평균 5개월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조선시대 목조불상 및 소조불상과 비교해도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⁴⁶ 따라서 통상적인 건칠불상처럼 긴 건조시간과 복잡한 공정이 필요한 제작 방식과 달리, 소조 원형을 간단히 만들고 섬유 반죽을 사용하여 제작 시간과 비용을 줄인 점은 <기림사 건칠보살상>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Table 3> <한국 건칠불상의 조성 현황> Current Status of the Creation of Dry-lacquered Buddhist Statues in Korea



45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위의 보고서 (2008), p. 91.

46 어준일, 앞의 논문 (2012), p. 89.

한편, 한국 건칠불상은 대부분 여말선초에 조성되어 약 1세기 동안 유행하고 <기림사 건칠 보살상> 이후로 급격히 감소한다(Table 3).⁴⁷ 이 시기는 건칠불상 조성의 필수 재료인 삼베 생산의 급격한 감소와 맞물린다.⁴⁸ 건칠불상은 삼베를 겹겹이 바르기 때문에 다른 불상에 비해 몇 배나 더 많은 삼베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연산군(재위, 1494~1506)의 재정 낭비로 전체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졌으며, 연속적인 흉년, 금표(禁標) 설치 등 경제난이 극에 달하게 된다.⁴⁹ 게다가 불교계에 대한 공식적인 억압이 이어져 대체로 불상 조성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중들에게 종교적 위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동시에 전란 중에 의승군이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그 결과 불교계는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얻게 된다.⁵⁰ 의승군으로 참여한 일부 사찰을 중심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등 크고 작은 재건 불사가 이루어졌다.⁵¹ 불사의 중심은 예배의 대상인 불상 조성이었으며 목조불과 조소불의 조성이 증가하고, 이는 곧 불상의 대형화로 이어졌다. 특히 17세기 대형 조소불상을 조성한 사찰은 대부분 산에 위치하여 흙 수급은 물론 목재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⁵² 즉, 당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빠르게 불상을 조성하였고, 대형화된 불상은 높아진 불교계의 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목조와 조소로 조성되는 불상은 1~2m가 넘는 것이 대부분이며 17세기에는 3m가 넘는 크기의 상이 조성되기도 한다.⁵³

47 국가가 바뀌는 시기에 불상 조성에 나타나는 '신재료의 등장'은 한정된 시기에 유행한다는 시기적 특성을 가진다. 비슷한 예로 나말여초에 시작되어 고려 전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철불이 있다. 철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보경, 「신라 하대·고려 철불 연구」(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를 참고하기 바란다.

48 15세기에는 각 도에서 삼베를 생산하였으나, 16세기에 들어서면 북부지역의 특산물로 생산되고 남부지역은 생산 비율이 감소하였다. 특히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는 생산량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까지 가장 보편적인 직물이었던 삼베는 16세기부터 목화, 즉 무명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이는 세금 징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기부터는 무명도 세금으로 징수하기 시작한다. 조상준, 「조선시대 삼베 생산지 연구」, 『인문과학연구』 66 (2020), pp. 286-297.

49 김창희, 「연산군대 금표 설치와 경기의 농산물 유통」, 『역사와 현실』 121 (2021), pp. 116-118. 『연산군일기』 권53, 연산 10년(1504), “當從平地立禁標, 則必多撤人家.”

50 의승군은 주요 전투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성 축조, 군량 보급 등을 담당하였고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국가자료와 문화유산 수호에 앞장서는 등 전란에서 주요 역할을 하였다. 김용태, 「조선 중기 의승군 전통에 대한 재고: 호국불교의 조선적 발현」, 『동국사학』 61 (2016), pp. 97-99.

51 대형 조소불상이 봉안된 사찰은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승병 활동을 했던 인물과 관련이 있다. 심주완, 「壬辰倭亂 이후의 大形塑造佛像에 관한 研究」, 『미술사학연구』 233·234 (2002), pp. 98-99. 대표적으로 <완주 송광사 조소석가여래삼존 좌상>(1641)가 있으며, 「조성기」에 따르면 전쟁에 참여한 의승군을 포함한 많은 장졸(將卒)들의 명복을 기원하였다. 유근자, 「17세기의 완주 송광사 불사와 벽암 각성(碧巖 覺性)」, 『남도문화연구』 36 (2019), pp. 162-163.

52 조선시대 조소불상은 약 80여건이 확인되는데 그중 64건이 17세기에 조성되었으며, 대부분 1650년 이전에 해당한다. 김광희, 「조선시대 조소불상의 제작기법」, 『미술사연구』 39 (2020), pp. 63-65.

53 이희경, 「조선 전기 불상 특징과 조선 후기 17세기로의 이행」, 『한국중세고학』 6 (2019), pp. 81-82의 <표 2> 참고.

이러한 대형불상을 건칠기법으로 조성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 건칠불상의 크기는 대부분 1m 내외로 비교적 일정하여 목조나 소조불상처럼 대형으로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서술한 것처럼 건칠불상의 주요 재료인 삼베는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반면, 목조불상과 소조불상의 재료는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금동불상이나 건칠불상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자연스럽게 고려 말부터 성행한 건칠불상의 조성은 16세기에 들어서 급격히 감소하고 대형의 소조불상과 목조불상의 조성으로 변화한다.⁵⁴

V. 맺음말

〈기림사 건칠보살상〉은 조성시기와 존명이 명확히 밝혀진 조선 전기 보살상이며, 시대적·재료적 특수성이 뚜렷한 건칠불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림사 건칠보살상〉을 다각도로 고찰하여 조성배경과 특징, 제작기법에 대해 파악하고 그 의의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먼저, 목서명을 새롭게 판독하여 구체적인 조성배경에 대해 밝혔다. 원봉안처는 ‘신라 함월산 서수암’으로 이곳의 주존으로 ‘낙산관음보살’을 조성한 것이다. 발원자는 6명 이상이며 양반 계층의 후원을 바탕으로 승려가 중심이 되었다. 특히 공양주로 참여하였으며 ‘화엄사’로서 덕망을 쌓은 승려 지회가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앙적 배경은 목서명에 기록된 ‘낙산관음’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낙산사를 중심으로 고려시대부터 성행한 낙산관음 신앙은 관음보살의 현세이익적 성격이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결합하여 해난구제 형태로 발현되었다. 〈기림사 건칠보살상〉의 원봉안처가 위치한 함월산 역시 바다와 가까운 지역으로, 조성 당시 경상도 지역에는 수해와 외적의 침입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려 지회는 서수암을 제2의 관음성지로 여기고 해난을 막고 재난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림사 건칠보살상〉을 조성한 것으로 보았다. ‘낙산관음’이라고 명확히 밝혀진 유일한 보살상이라는 점에서 고려시대부터 유행한 낙산관음 신앙이 조선 전기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된다.

⁵⁴ 〈기림사 건칠보살상〉을 제외하면 16세기 이후 건칠불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건칠불상의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양식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림사 건칠보살상〉의 특징은 첫째, 15세기 중반부터 왕실을 중심으로 유행한 명대 티베트 양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주요 발원자인 승려 지희가 금강산 일대 사찰과 무량사에 주석할 당시 참여했던 불사를 통해 왕실에서 유행했던 불상 양식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둘째, 〈기림사 건칠보살상〉에는 16세기 보살상의 특징이 함께 나타나는데, 수발의 생략을 비롯하여 보살의 상징적인 표현을 간략화하고 여래상의 이미지에 가깝게 표현하였다. 나아가 관음보살이 측면에서 정면을 향하게 되는데 예배자가 관음보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림사 건칠보살상〉도 정면을 향한 모습으로 조성되어, 당시 독존으로 봉안된 예배대상으로서 높아진 보살의 위신력을 잘 나타낸다. 셋째는 전통적인 착의법으로 넓은 천의, 요포가 군 상단을 보완한 표현, 상현좌 등이 있다. 특히 상현좌는 비슷한 시기 건칠불상에 자주 보이는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보계 덮개가 있었던 점에 주목하였다. 보계 덮개는 불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지만, 조각에서는 드물게 확인된다. 〈기림사 건칠보살상〉을 통해 다른 보살상들도 조성 당시에는 보계 덮개가 있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제작기법을 살펴본 결과, 〈기림사 건칠보살상〉은 통상적인 한국 건칠불상과 달리 여러 겹의 삼베층이 확인되지 않고 섬유 반죽을 사용하였다. 이를 〈영덕 장륙사 건칠관음보살좌상〉과 비교하여 제작 과정의 초기 단계인 소조 원형부터 간소화했음을 추정하였다. 나아가 삼베와 옷칠 과정을 최소화하고 섬유 반죽을 올려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건칠 불상의 조성이 확인되지 않는데, 재료의 감소, 경제난, 대형 목조·소조불상의 유행 등 다양한 이유로 자연스럽게 건칠불상의 제작이 감소한 것으로 보았다.

1501년에 조성된 〈기림사 건칠보살상〉은 한국 건칠불상 쇠퇴기에 조성된 것으로 함께 전해지는 대좌의 묵서명을 통해 원봉안처와 발원자, 보살상의 정확한 존명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칠’이라는 중요한 재료적 특성을 지닌다. 또한 전체적으로 15세기 왕실 발원 불상과 친연성이 있으며, 세부적인 표현이나 장식은 16세기 불상 양식을 보인다. 여말선초부터 16세기 불교조각의 흐름을 잘 나타내는 작품으로서 조선 전기 불교조각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 주제어(keywords)_건칠불(Dry-lacquered Buddhist statue), 기림사(Kirimsa Temple), 건칠보살상(Dry-lacquered bodhisattva statue), 낙산관음(Potalaka-Avalokitesvara), 지희(Chi Hŭi, 智熙)

■ 투고일 2024년 11월 10일 | 심사개시일 2024년 11월 12일 | 심사완료일 2025년 3월 30일 ■

참고문헌

1. 사료

『고문서집성』
『高峯和尚禪要』
『大覺國師文集』
『동국여지승람』
『동문선』
『모재집』
『묘법연화경』
『常曉和尚請來目錄』
『삼국유사』
『선림보훈』
『성종실록』
『소개집』
『신라함월산기림사사적』
『신증동국여지승람』
『연산군일기』
『추강집』
『통록촬요』

2. 한국어문헌

강인구, 「瑞山 文殊寺 金銅如來坐像 腹藏遺物」, 『미술자료』 18, 1975.
강희정, 「고려 수월관음도상의 연원에 대한 재검토」, 『미술사연구』 8, 1994.
권보경, 「신라 하대 · 고려 철불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김광희, 「16세기菩薩像 연구」, 『문물연구』 14, 2008
_____, 「조선시대 소조불상의 제작기법」, 『미술사연구』 39, 2020.
김수현, 「佛畫에 나타난 韓國 觀音信仰의 變遷」, 『역사민속학』 23, 2006.
김용표, 「조선 중기 의승군 전통에 대한 재고 : 호국불교의 조선적 발현」, 『동국사학』 61, 2016.
김창희, 「연산군대 금표 설치와 경기의 농산물 유통」, 『역사와 현실』 121, 2021.
김추연,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봉안 불상 연구」, 『미술사연구』 39, 2020.
문화재청, 『전국사찰현황실태조사서: 기림사 82』, 1983.
_____, 『건칠불-한국의 불상 X-ray 조사보고서 I』, 2008.
_____, 『2021년 중요동산문화재 불상기록화 보고서』, 2021.

- _____, 『한국의 사찰문화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I 자료집』, 2007.
- 배진달(배재호), 「女性轉身形 觀音菩薩像의 一例-仁川市立博物館 소장의 明代 觀音菩薩坐像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35, 2005.
- 서지인, 「高麗 末 朝鮮 初의 觀音 및 地藏 遊戲坐像 研究」,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 송은석, 「麗末鮮初 補陀落迦山 觀音의 信仰과 美術」, 『불교미술사학』 28, 2019.
- 심주완, 「壬辰倭亂 이후의 大形塑造佛像에 관한 研究」. 『미술사학연구』 233 · 234, 2002.
- 유근자, 「17세기의 완주 송광사 불사와 벽암 각성(碧巖 覺性)」, 『남도문화연구』 36, 2019.
- 유대호, 「조선 전기 도갑사 불상군의 특징과 제작 배경-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사진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40, 2021.
- 유혜인, 「朝鮮時代 乾漆佛像 研究」,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 이은주, 「조선초기 금동불상에 나타나는 명대 라마불상양식의 영향」, 『강좌미술사』 15, 2000.
- 이종수 · 허상호, 「17-18세기 불화의 『畫記』 분석과 용어 考察」, 『불교미술』 21, 2010.
- 이희정, 「조선 전기 불상 특징과 조선 후기 17세기로의 이행」, 『한국중세고고학』 6, 2019.
- 임영애, 「조선시대 사천왕상 존명의 변화」, 『미술사학연구』 265, 2010.
- 정병삼, 「관음신앙의 불교사적 의의와 신라 海水觀音」, 『한국고대사탐구』 44, 2023.
- 정은우, 「西日本地域의 高麗佛像과 浮石寺 銅造觀音菩薩坐像」, 『동양미술사학』 14, 2013.
- _____,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의 특징과 제작시기 검토」, 『미술사연구』 32, 2017.
- 정은우 · 민환, 「奉化 淸涼寺 乾漆藥師如來坐像의 재료 및 제작기술 연구」, 『한국문화』 54, 2020.
- 정형우, 「『제불여래보살명칭가곡』의 수입과 그 보급 · 송승 문제」, 『동방학지』 54-56, 1987.
- 조상준, 「조선시대 삼베 생산지 연구」, 『인문과학연구』 66, 2020.
- 진홍섭, 『목재한화』, 대원사, 1999.
- 최성은, 「13世紀 高麗 木造阿彌陀佛像과 腹藏墨書銘」, 『한국사학보』 30, 2008.
- 최소림,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연구-15세기 불상양식의 일 이해-」, 『강좌미술사』 15, 2000.
- 최영성, 「김시습과 무량사의 관계-몇 가지 문헌 고증을 중심으로」, 『울곡학연구』 39, 2019.
- 최은령, 「조선초기 건칠불상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건칠보살입상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3. 데이터베이스

- 조선시대 불서인명 DB, <https://kabc.dongguk.edu/budna/index>
-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
- 한국학자료센터, <https://kostma.aks.ac.kr/>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Ch'ugangjip

Jōgyō ōsho seirai mokuroku[*Master Jōgyō's Catalog Submitted by Imperial Request*]

Kobong hwasang sŏn'yo

Komunsŏ chipsŏng

Mojaejip

Myobŏp yŏnhwagyŏng[*Lotus Sūtra*]

Samguk yusa

Silla Hamwŏlsan Kirimsa sajŏk

Sinjŏng Tongguk yŏji sŏngnam

Sojaejip

Sŏllimbohun

Sŏngjong sillok

Taegak kuksa munjip

Tongguk yŏji sŏngnam

Tongmunsŏn

T'ongnok ch'waryo

Yŏnsan'gun ilgi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Chin, Hongsŏp. *Mukchaehanhwa*. Sŏul: Taewŏnsa, 1999.

Cho, Sangchun (Jo, Sang-Jun). "Chosŏn sidae sambe saengsanji yŏn'gu." *Inmun kwahak yŏn'gu* 66 (September 2020): 283-312.

Ch'oe, Sŏngŭn (Choe, Songeun). "13 segi Koryŏ mokcho Amit'a pulsang kwa pokchang muksŏmyŏng(Amitabha Buddha Images of 13th Century Goryeo Period and their Ink Texts)." *Han'guksa hakpo* 30 (February 2008): 111-151.

Ch'oe, Sorim (Choe, Soh Lim). "Hŭksŏksa mokcho Amit'a pulchwasang yŏn'gu: 15 segi pulsang yangsik ũi irihae(A Study on the Seated Wooden Buddha Image Dated 1458 A.D. at the Heuksuk Temple)." *Kangjwa misulsa* 15 (December 2000): 77-100.

Ch'oe, Ũnryŏng (Choi, Eun-ryung). "Chosŏn ch'ogi kŏnch'il pulsang e kwanhan yŏn'gu - Tong'a taehakkyo pangmulgwan sojang kŏnch'il posal ipsang ũl chungsim ũro."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2000.

- Ch'oe, Yöngsöng. "Kim Sisüp kwa Muryangsa üi kwan'gye - myöt kaji munhön kojüng üi chungsim üro(Several Relations between Kim Siseup and Muryangsa Temple - Focusing on literature research)." *Yulgokhak yön'gu* 39 (September 2019): 189-214.
- Chöng, Hyöng'u. "Chebul yörae posal myöngch'inggagok üi suip kwa kü pogüp, songsüp munje(Recitation Problems of the Import and Propagation of *Songs Adoring Various Buddhist Images*)." *Tongbang hakchi* 56 (June 1987): 717-734.
- Chöng, Pyöngsam (Jung, Byung-sam). "Kwanüm sinang üi pulgyosa chök üüi wa Silla Haesu Kwanüm." *Han'guk kodaesa t'amgu* 44 (August 2008): 5-35.
- Chöng, Ŭnu (Jeong, Eunwoo). "Ponghwa Ch'öngnyangsa könch'il Yaksa yörae chwasang üi tükching kwa chejak sigi kömt'o." *Misulsa yön'gu* 32 (June 2017): 113-137.
- Chöng, Ŭnu, and Chaeho Pae. "Söilbon chiyök üi Koryö pulsang kwa Pusöksa tongjo Kwanüm posal chwasang." *Tongakmisul sahak* 14 (June 2013): 7-33.
- Chöng, Ŭnu, and Hwal Min. "Ponghwa Ch'öngnyangsa könch'il yaksa yörae chwasang üi chaeryo mit chejak kisu yön'gu." *Han'guk munhwa* 54 (December 2020): 113-137.
- I, Chongsu, and Sangho Hö. "17-18 segi purhwa üi hwagi punsök kwa yongö koch'al." *Pulgyo misul* 21 (December 2010): 136-181.
- I, Hüichöng. "Chosön chöngi pulsang t'ükching kwa Chosön hugi 17 segiro üi ihaeng(The characteristics of the Buddhist Sculpture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the transition to the late-Joseon(17th) Buddhist statues)." *Han'guk chungse kogohak* 6 (October 2019): 69-101.
- I, Ŭnchu (Lee, Eun Su). "Chosön ch'ogi kümdong pulsang e nat'ananün Myöngdae rama pulsang yangsik üi yöngyang(The Influence of the Lamaist Style of Ming Dynasty on the Gilt - bronze Buddhist)." *Kangjwa misulsa* 15 (December 2000): 47-76.
- Im, Yöng'ae (Lim, Yong-ae). "Chosön sidae sach'önwangsang chonmyöng üi pyönhwa." *Misulsa hak yön'gu* 265 (March 2010): 73-104.
- Kang, Hüichöng (Kang, Hee-jung). "Koryö Suwölgwanüm tosang üi yönwön e taehan chaegömt'o." *Misulsa yön'gu* 8 (December 1994): 3-32.
- Kang, Inku. "Sösan Munsusa kümdong yöraejwasang pokchang yumul." *Misul charyo* 18 (December 1975): 1-18.
- Kim, Ch'anghoe. "Yönsan'gundae kümp'yo sölch'i wa Kyönggi üi nongsanmul yut'ong." *Yöksa wa hyönsil* 121 (September 2021): 103-136.
- Kim, Ch'uyöñ. "Puyö muryangsa och'üngsökt'ap pongan pulsang yön'gu(A Study on the Buddhist Sculptures Enshrined inside the Five-story Stone Pagoda of Muryangsa Temple in Buyeo)." *Misulsa yön'gu* 39 (2020): 35-60.
- Kim, Kwanghüi (Kim, Kwang Hee). "16-segi posalsang yön'gu(A Study on the Bodhisattva Statues in 16th Century)." *Munmul yön'gu* 14 (September 2008): 103-136.
- _____. "Chosön sidae sojobulsang üi chejak kiböp(Production Techniques of Clay Buddhist Sculptures from the Joseon Dynasty)." *Misulsa yön'gu* 39 (December 2020): 61-90.

- Kim, Suhyŏn, "Pulhwa e nat'anhan Han'guk Kwanŭm sinang ũi pyŏnch'ŏn," *Yŏksa minsok'ak* 23 (December 2006): 7-31.
- Kim, Yongt'ae (Kim, Yong Tae), "Chosŏn chunggi ũisŭnggun chŏnt'ong e taehan chaego: Hoguk pulgyo ũi Chosŏnjŏk parhyŏn," *Tongguk sahak* 61 (December 2016): 87-119.
- Kwŏn, Pokyŏng (Kwon, Bokyoung), "Silla hadae, Koryŏ ch'ŏlbul yŏn'gu," PhD diss., Dongguk University, 2022.
- Munhwajaech'ŏng (Korea Heritage Service). *Chŏn'guk sach'al hyŏnhwang silt'ae chosaso: Kirimsa* 82, Sŏul: Kukkyusanch'ŏng, 1983.
- _____. *Han'guk ũi sach'al munhwajae: Taegu kwangyŏk-si Kyŏngsangbuk-do charyojip I*, Sŏul: Kukkyusanch'ŏng, 2007.
- _____. *Kŏnch'ilbul-Han'guk ũi pulsang X-ray chosa pogosŏ I*, Sŏul: Kukkyusanch'ŏng, 2008.
- _____. *2021 nyŏn chungyo tongsan munhwajae pulsang kirok'wa pogosŏ*, Sŏul: Kukkyusanch'ŏng, 2021.
- Pae, Chintal (Bae, Jindal), "Yŏsŏng chŏnsinhyŏng Kwanŭm posalsang ũi illye-Inch'ŏn sirip pangmulgwan sojang ũi Myŏngdae Kwanŭm posal chwasang ũl chungsim ũro-," *Chungguksa yŏn'gu* 35 (March 2005): 223-243.
- Sim, Chuwan (Sim, Joowan), "Imjinwaeran ihu ũi taehyŏng sojobulsang e kwanhan yŏn'gu," *Misulsahak yŏn'gu* 233 and 234 (June 2002): 95-138.
- Sŏ, Chiin, "Koryŏ mal Chosŏn ch'o ũi Kwanŭm mit Chijang yuhŭijwasang yŏn'gu,"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2015.
- Song, Ũnsŏk (Song, Unsok), "Ryŏmalsŏnch'o pot'arakkasan Kwanŭm ũi sinang kwa misul(The Faith and the Art of the Avalokiteśvara Bodhisattva in Mount Potalaka between the late Goryeo period and the early Joseon period)," *Pulgyo misul sahak* 28 (October 2019): 249-271.
- Yu, Hyein, "Chosŏn sidae kŏnch'il pulsang yŏn'gu,"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2019.
- Yu, Kŭncha (Yoo, Geunja), "17 segi ũi Wanju Songgwangsa pulsa wa Pyŏgam Kaksŏng(The Reconstruction of Songgwangsa Temple in Wanju in the 17th Century and Monk Byeogam Gakseong)," *Namdo munhwa yŏn'gu* 36 (April 2019): 121-169.
- Yu, Taeho (Yoo, Daeho), "Chosŏn chŏn'gi Togapsa pulsanggun ũi t'ŭkching kwa chejak paegyŏng -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yurigŏnp'an sajin ũl chungsim ũro," *Misulsa yŏn'gu* 40 (June 2021): 163-189.

3. Database

- Chosŏn sidae pulsŏnmyŏng DB (The Names of people appearing in Joseon-era Buddhist Archives), <https://kabc.dongguk.edu/budna/index>
- Han'guk kojŏn chonghap DB, <https://db.itkc.or.kr/>
- Han'guk'ak charyo sent'ŏ (Center for Korean Studies Materials), <https://kostma.aks.ac.kr/>

국문초록

본 논문은 1501년에 조성된 <기림사 건칠보살상>을 다각도로 고찰하여 조성배경과 특징을 파악하고 한국 불교조각사에서 갖는 의의를 찾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문서명을 새롭게 판독한 결과, <기림사 건칠보살상>의 원봉안처는 함월산 서수암이며, 이곳의 주존으로 '낙산관음보살'을 조성하였다. 발원자로 참여한 인물은 6명 이상이며, '화엄사'로 불릴 만큼 화엄에 능통했던 승려 지회를 중심으로 양반 계층의 경제적 후원이 있었다. 당시 널리 알려진 낙산관음신앙을 바탕으로 경상도 지역에서 우려되던 해난구제를 위해 '낙산관음보살'로 조성된 것이며, 현재까지 존명이 확인된 보살상 가운데 유일한 '낙산관음'이다.

<기림사 건칠보살상>은 조선 초기에 유행한 명대 티베트 양식이 표현되었는데, 명으로부터 유입된 『명칭가곡』의 변상관화가 불상까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또한 15세기와 16세기 특징을 모두 가진 보살상으로서 두 시기를 이어주는 중요한 기년작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X-ray와 3D-CT 촬영 조사를 통해 제작기법을 파악한 결과, 한국 건칠불상의 일반적인 제작기법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삼베를 적게 사용하고 섬유 반죽을 사용하여 조성 기간과 비용을 줄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여말선초부터 약 1세기 동안 조성된 건칠불상은 <기림사 건칠보살상>을 거의 마지막으로 하며, 이후 대형 목조불과 소조불 유행으로 자연스럽게 한국 건칠불상의 조성은 감소하게 된다.

Abstract

A Study of the Dry-lacquer Avalokiteśvara in Pensive Pose at Kirimsa Temple, Dated 1501

Kim, Jieun*

This paper examines the *Dry-Lacquer Avalokiteśvara in Pensive Pose* enshrined at Kirimsa Temple and dated to 1501, with the aim of identifying its historical context, stylistic features, and significance within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t sculpture.

A new reading of the ink inscription reveals that the statue was originally enshrined at Sōsuaṃ Hermitage on Mount Hamwöl and was intended as an image of Avalokiteśvara of Naksan (Naksan Kwanūm), the central deity of worship at that site. At least six donors participated in the commissioning of this image, with significant financial support from the yangban elite and the leadership of the monk Jihee, a figure known for his expertise in Hwaōm (Huayan) teachings—so much so that the temple was referred to as “Hwaōmsa.” The iconography reflects the widespread belief in Avalokiteśvara of Naksan, a popular cult at the time, and the statue was likely created as a protective deity invoked against maritime disasters in the Kyōngsang region. This image is the only extant example among known pensive bodhisattva statues to be explicitly identified as “Naksan Avalokiteśvara,” underscoring its unique devotional and regional identity.

Stylistically, the statue incorporates elements of the Ming-dynasty Tibetan style, which gained popularity in early Chosŏn sculpture. This influence is attributed to the visual culture of *Ming cheng jia ge* (明稱家曲), a Chinese Buddhist text accompanied by transformation tableaux that appear to have shaped contemporary sculptural forms. As a transitional piece bridging the 15th and 16th centuries, the statue serves as a critical datable work that illustrates shifts in bodhisattva iconography and style. Technical investigation using X-ray and 3D-CT scanning reveals that the fabrication method of this dry-lacquer image diverges from conventional Korean techniques. Instead of employing multiple layers of hemp cloth, a fiber-based paste

* Ph.D. Student, Division of Art History, Dongguk University; Curator, Dongguk University Museum

appears to have been used, likely to reduce production time and cost. The *Kirimsa Dry-Lacquer Avalokiteśvara* represents one of the final examples of Korean dry-lacquer sculpture, which experienced a sharp decline thereafter, supplanted by large-scale wooden and clay images that dominated later Chosŏn Buddhist sculpture.